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저성장 지속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
- 中, 외환보유고 1조 달러 돌파로 위안화 절상 압력 증대 예상

경영 노트

- 글로벌 M&A의 새로운 강자, 인디아

사회 트렌드

- 한국의 부패지수, 163개 국 중 42위
- 브로드즌(Broadizen) : 1인 1방송국

저널 브리프

- 공격경영에 나선 글로벌 기업

洗心錄

- 디즈레일리 vs. 글래드스톤

□ 저성장 지속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

- 소득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3/4분기에 7.79배를 기록하여, 전국 가구에 대한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조사 대상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5구간으로 등분하여, 5분위(최고소득층) 평균 소득을 1분위(최저소득층)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 1분위 소득 계층의 명목 금액 기준 月평균 소득은 80만 6,6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 계층인 5분위 계층의 소득은 628만 1,800원으로 5.3% 증가함
 - 특히 1분위 계층의 가계수지는 소득 감소와 더불어 조세, 이자 지급 등 非소비지출의 급증으로 처분가능소득(69만4,000원)보다 소비지출(102만 2,000원)이 많아 32만 8,000원의 적자를 나타냄(적자율 47.3%)
- 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는 내수 부진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어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 기회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내년에도 국내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中, 외환보유고 1조 달러 돌파로 위안화 절상 압력 증대 예상

-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서 전 세계 외환보유고(4조 6,819억 달러)의 21%를 차지
 - 중국의 외환보유고 급증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함
 -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은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달러화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아시아 중앙은행들간의 환율 정책 협조가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M&A의 새로운 강자, 친디아

- (배경) 지속적인 경제고도 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한 친디아 기업들이 글로벌 M&A 시장의 新강자로서 등장함
 - 자국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유무형 자산을 단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글로벌 M&A이기 때문임
- (현황) 주 대상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브랜드를 소유한 선진국 기업들임
 - 중국기업들은 동종업계의 글로벌 기업에 집중하는 한편, 인도기업들은 이 종업계에 대해서도 M&A를 집중하여 2005년에만 91건*을 기록함
 - 물론 IBM의 PC 부분을 인수한 중국의 레노보와 같이 경영능력 부족으로 경영실적 약화 등 문제점도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친디아 기업들의 M&A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 친디아 기업의 대표적인 글로벌 M&A 사례 >

국가	업종	인수 기업	국가	업종	피인수 기업
인도	종합그룹	타타그룹	미국	호텔	피레르, 리츠칼튼호텔
	전자	비디오콘	한국	전자	대우 일렉트로닉스
	제약	란박사	루마니아	제약	테라피아
	풍력발전	수즈론 에너지	벨기에	발전	이브홀딩스
	철강사	락시미 미탈	프랑스	제약	글락소의 아르셀로
중국	통신	차이나 모바일	룩셈부르크	통신	밀리콤
	섬유	자러그룹	일본	섬유	가네마츠 그룹
	기계	화립그룹	미국	통신	필립스 이동통신부문
	자동차	중국상하이 자동차	한국	자동차	쌍용자동차
	의약	삼구기업집단	일본	의약	일본 동아제약

- (시사점) 국내기업들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M&A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친디아 기업들의 M&A 부작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
 - 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거론되는 분야에서 국내기업들도 글로벌 M&A를 통한 선도적 지위 획득이 필요함
 - 한편 쌍용자동차 사례처럼 M&A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이 국가경쟁력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요구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06년 세계투자보고서'(2006.10.16)

□ 한국의 부패 지수, 163개 국 중 42위

-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는 전세계 163개 국 중 42위로, 작년 40위보다 하락했으며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크게 뒤진 상황임
 - 부패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국가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가 9.6점으로 1위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로 선정됨
-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5위)가 가장 앞섰고 홍콩(15위), 일본(17위) 순이며, 한국은 대만(34위)은 물론 마카오(26위, 6.6점)와 군주국가인 부탄(32위, 6.0점)에도 뒤짐
 -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30개 회원국 중에서는 23위를 차지. 특히 OECD 국가들의 지수 평균인 7.18점보다 2점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투명성이 경제력에 비해 여전히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브로디즌(Broadizen)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브로디즌(broadizen)’이 급증하고 있음
 -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브로디즌이란 ‘broadcast(방송)+ netizen(네티즌)’의 합성어로, 1인 1방송국의 형태를 의미함
 - 시청료나 광고료 수익은 없지만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맘껏 드러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시청자 반응을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임
 - 이러한 개인방송은 기존 방송의 틀을 깨고 자유스럽고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음악, 게임, 스포츠 중계, 홈쇼핑, 시사, 교육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브로디즌은 개인의 역할이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에까지 확대된 프로슈밍(Prosuming: 생산소비)의 예라고 할 수 있음
 - 브로디즌과 함께 대중매체의 다원화와 대중문화의 고유 영역 파괴를 가져오는 문화의 프로슈밍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공격경영에 나선 글로벌 기업*

- (글로벌 기업의 공격경영) 맥킨지(McKinsey)가 각국의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Global Survey of Business Executive)에서 글로벌 경영자들은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및 신흥 시장 확대, 인재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인 신규 사업 공략)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은 자국의 경기 흐름과는 관련없이, 신규 사업 부문을 확대하는 등 공세(攻勢)적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인도·중국 등 신흥 시장 맞춤형 공략) 인도·중국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하는 경영자들은 저렴한 임금, 시장 공략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현지 신규 인력 채용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슬림화 동시 진행 : 한편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경영자들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리해고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슬림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체계적 인력 양성 시스템 필요) 글로벌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체계적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세계적인 기업들의 우수인재 확보 :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먼삭스는 우수인재 배출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였고, 미국의 정보통신기업인 EDS는 10만여 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인력풀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함
- (시사점) 한국 기업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공략에 나서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도 우수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통해 공격경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육성, 인력풀 활용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활용 시스템이 필요함

* 이 글은 『Economic Review』(2006.11.1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디즈레일리 vs. 글래드스톤

자유당의 윌리엄 글래드스톤(1809~1898)과 보수당의 벤자민 디즈레일리(1804~1881)는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기를 지도하며 대영제국의 영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총리들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늘 최대의 라이벌이었다. 한번은 디즈레일리에 불행과 재난을 구별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는 “글래드스톤 씨가 템즈 강에 빠진다면 그건 불행이지요. 하지만 누가 그를 건져준다면 그것은 재난일 것입니다”라고 대꾸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전병욱 목사의 저서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에도 두 총리를 비교하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두 사람과 식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글래드스톤과 식사를 한 이후에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즈레일리와 식사한 이후에는 그와 식사를 한 자신이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글래드스톤이나 디즈레일리 모두 뛰어난 자질과 훌륭한 품성으로 상대방에게 인상적인 감명을 주는 인물들이었다. 두 사람 모두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 주었다. 그러나 디즈레일리는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관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함과 자상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사람들은 탁월한 글래드스톤을 좋아할까, 아니면 자기도 탁월하다고 느끼게 힘을 주는 디즈레일리를 좋아할까.

미국의 문필가 마크 트웨인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당신 역시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준다”고 말했다. 디즈레일리는 바로 상대방도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다.

君子以行言，小人以舌言 (군자이행언 소인이설언)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 공자가어(孔子家語) 안회(顏回)